

II. 코로나19 장기화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1. 검토 배경
2. 기업의 재무건전성 및 유동성 사정
3. 향후 전망 및 잠재리스크
4. 종합 평가

1. 검토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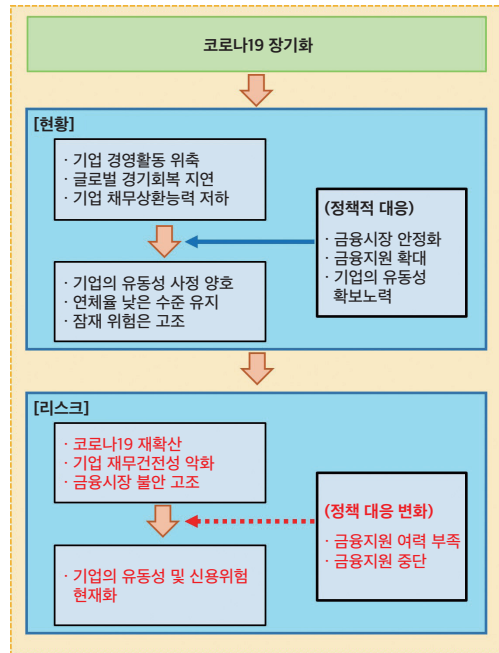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기업¹⁾의 경영활동이 위축되면서 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도 지속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통화정책의 완화적 운용, 정부 및 금융기관 등을 통한 금융지원²⁾, 기업들의 유동성 확보 노력 등으로 연체율이 낮은 수준³⁾을 나타내는 등 기업 부실 위험이 현재화되지 않는 모습이다.

그러나 내년에도 글로벌 경기회복세가 부진할 경우 국내외 실물충격으로 국내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저하되고 신용 및 유동성 위험이 더욱 증대될 수 있다. 또한 내년 3월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 중 일부가 종료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의 경영활동 및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경계감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는 경우에도 국내외 경기회복 및 기업 경영활동 정상화 시점이나 경로 등에 있어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유동성 및 신용 위험의 현재화 가능성 등에 대해 점검해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 등의 정책대응 지속여부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그림 II-1).

그림 II-1. 코로나19 충격 및 잠재리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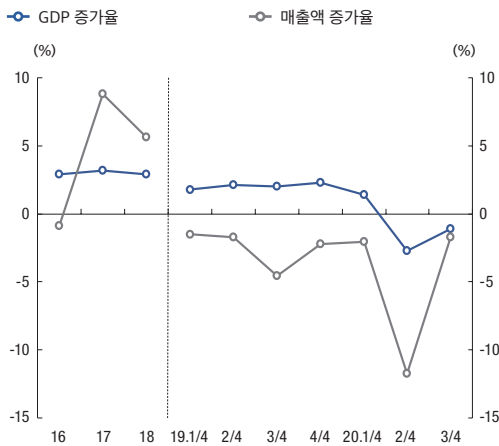
1) 국내 상장기업 2,013개 및 비상장기업 중 분기별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기업 285개 등 총 2,298개 기업(대기업 1,219개, 중소기업 1,079개)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들 기업의 2019년 매출액은 전체 법인기업의 40.4%를 차지한다.
 2) 코로나19 이후(20년 2월 7일~11월 6일) 금융권은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규대출 104.5조원, 만기연장 137.7조원 등의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정책당국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 15.8조원의 자금을 공급하였다.
 3) 국내은행의 2020년 9월말 기업대출 연체율(0.37%,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기준)은 2007년 통계편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 기업의 재무건전성 및 유동성 사정

가. 재무건전성

금년중 기업의 매출액은 1/4분기에 예년 수준을 나타냈으나 2/4분기 들어 코로나19에 따른 실물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큰 폭(-11.7%) 감소하였다. 다만 3/4분기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전기에 비해 회복되는 움직임을 보였다⁴⁾(그림 II-2).

그림 II-2. 매출액 및 GDP 증가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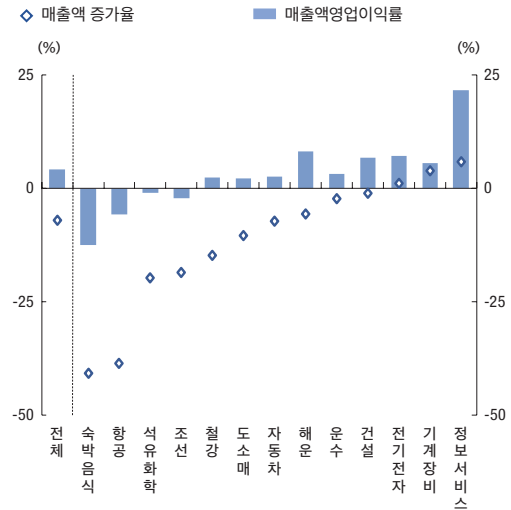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자료: 한국은행, KIS-Value

금년 상반기중 매출액을 업종별로 보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크게 감소하였다. 특히 숙박음식(전년동기대비 -40.7%), 항공(-38.7%), 석유화학(-19.8%), 조선(-18.6%) 등의 매출액 감소가

두드러졌다. 반면 정보서비스(+5.9%), 기계장비(+3.9%), 전기전자(+1.1%) 등의 업종에서는 소비행태 변화⁵⁾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양호한 실적을 나타냈다(그림 II-3).

그림 II-3. 업종별 매출액 증가율¹⁾²⁾ 및 영업이익률¹⁾



주: 1) 2020년 상반기 기준
2) 전년동기대비
자료: KIS-Value

(과거 위기사례와의 비교)

한편 최근 기업의 재무건전성 저하 정도를 과거 위기사례와 비교⁶⁾해 보면 매출충격이 상대적으로 컸음에도 불구하고 재무건전성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상반기중 매출액 증가율(-7.0%)은 1996년 이후 최저 수준⁷⁾으로 과거 위기시(외환위기 -2.8%, 글로벌 금융위기 -2.4%)를 크게 하회하였다. 이

4) 금년 3/4분기 매출액 증가율은 자료 입수가 가능한 국내 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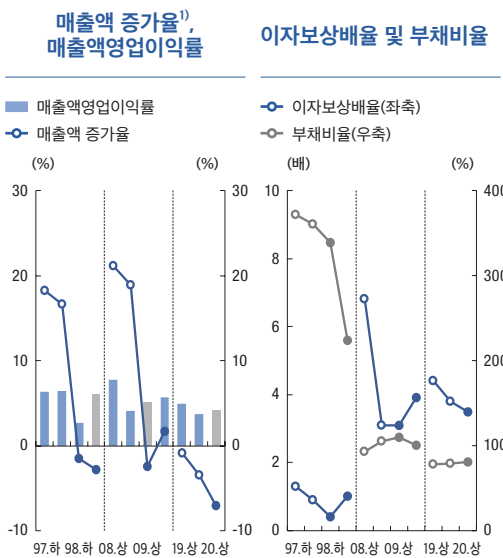
5)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이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근무, 학업, 문화, 레저 등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변모하는 '홈코노미' 현상이 확산되면서 관련 스마트기기 소비가 늘고,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등으로 비대면 소비도 활성화되었다.

6) 재무지표별로 금년 상반기와 과거 위기시 매출이 저하된 시기(98년 하반기~99년 상반기, 09년 상반기~하반기)의 최저값과 비교하였다. 다만,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의 계절성(영업비용 상당부분을 연말에 일시 계상함에 따라 하반기 이익이 상반기보다 작음) 등을 고려하여 금년 상반기를 99년 상반기 및 09년 상반기와 비교하였다.

7) 코스닥시장이 출범한 1996년 이후 시점을 대상으로 비교하였다. 한편, 2002년 하반기(-7.8%) 및 2003년 상반기(-9.1%)의 매출액 감소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난 것은 종합상사의 회계처리변경에 주로 기인한다.

에 따라 매출액영업이익률(4.2%)도 외환위기(6.1%), 금융위기(5.1%)에 비해 낮았지만, 전년 동기대비 하락폭(-0.8%포인트)은 매출액 감소폭에 비해서는 크지 않았다(외환위기 -3.7%포인트, 금융위기 -2.7%포인트). 또한, 이자보상배율 및 부채비율(3.5배, 81.1%)은 외환위기(1.0배, 339.2%) 및 금융위기(3.1배, 109.8%)에 비해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다⁸⁾(그림 II-4).

그림 II-4. 과거 위기사례와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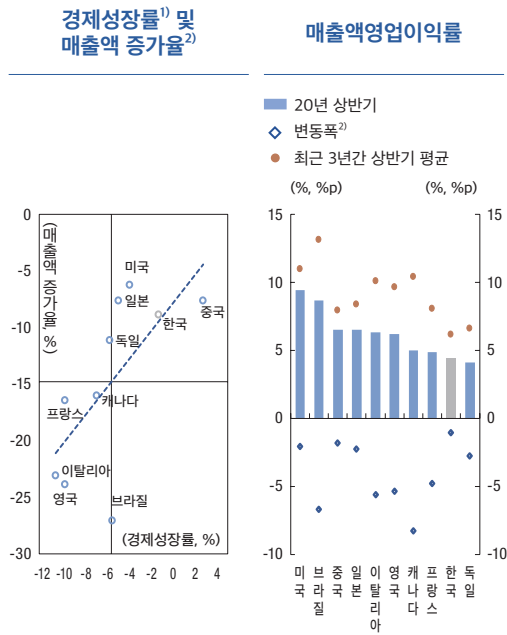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자료: KIS-Value

(주요국과의 비교)

주요국과 비교⁹⁾해도 기업 재무건전성은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경제성장률(IMF 전망치, 금년중 -1.9%)이 주요국(평균 -5.9%)에 비해 하락폭이 작아 실물경기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

운데, 매출액 감소폭(-8.9%)도 주요국(-14.8%)보다 작았다. 매출액영업이익률(4.4%)의 경우 주요국(6.2%)보다 낮았지만 매출액영업이익률 하락폭(전년동기대비 -1.1%포인트)도 주요국(-4.1%포인트)에 비해 작았다(그림 II-5).

그림 II-5. 주요국 기업의 성장성 및 수익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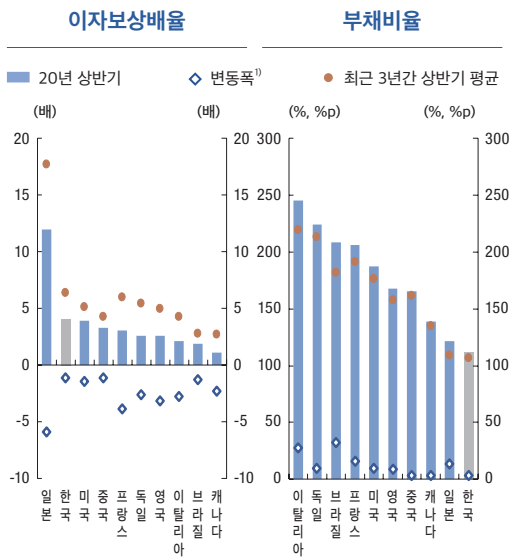


주: 1) IMF의 2020년중 전망치
2) 전년동기대비
자료: S&P Capital IQ

또한, 이자보상배율(4.0배)이 대부분의 국가보다 높았으며, 부채비율(111.7%)은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그림 II-6).

8) 금년 상반기중 큰 폭의 매출충격에도 불구하고 재무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한 것은 기업들이 재무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해 온 데다 한국은행 및 정부가 신속히 정책대응을 추진한 데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9)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던 금년 상반기를 비교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국제비교를 위해 각국 상장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국내기업의 재무지표가 앞의 분석에서와 다른 값을 보인다.

그림 II-6. 주요국 기업의 채무상환능력



주: 1) 전년동기대비
자료: S&P Capital I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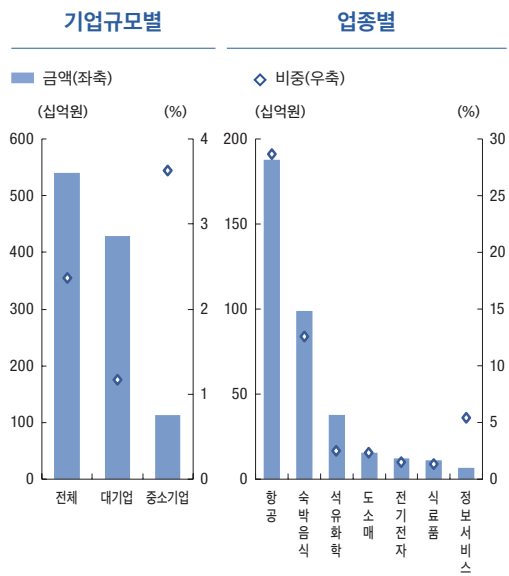
나. 유동성 사정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기업 유동성 사정은 정책당국의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자금지원 대책 등에 힘입어 대체로 양호하였다. 2020년 상반기중 기업의 유동성 부족규모¹⁰⁾는 0.5조원, 유동성 부족기업 수 비중은 2.4%로 2019년 상반기중 0.2조원(1.4%)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다만 정부의 지원대책 등이 없었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유동성 부족규모가 4.9조원(5.8%)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¹¹⁾된다.

한편 상반기중 유동성 부족규모(0.5조원)를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이 전체 유동성 부족의

79.3%를 차지하였으며, 업종별로는 항공(0.2조원), 숙박음식(0.1조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II-7).

그림 II-7. 유동성 부족규모 및 부족기업 수 비중¹⁾



주: 1) 2020년 상반기 기준
자료: KIS-Value, 한국은행 시산

3. 향후 전망 및 잠재리스크

가. 업황 전망 및 시나리오 설정

한국은행 및 IMF의 경제성장률 전망과 주요산업 전망 등을 기초로 내년도 매출액 증가율을 추정해 보았다. 글로벌 경기회복 전망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하지만 코로나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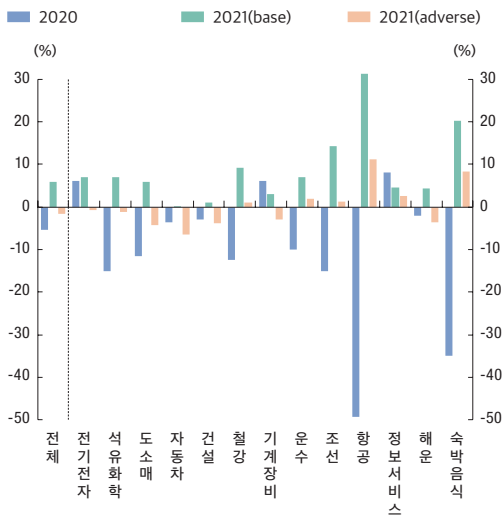
10) 영업이익을 포함한 유동자산 규모가 해당기간중 부채상환필요액보다 적은 경우를 유동성 부족 상황으로 간주하였다. 유동성 부족규모(SL)는 아래 산식을 통해 추정했으며, 유동화율은 그간의 비현금유동자산의 회전율을, 유동부채 차환율은 대출 만기연장률, 회사채 순발행 등을 반영해 각각 90% 내외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SL = \sum_{i=1}^n \text{현금성자산}_i + (\text{재고자산} + \text{매출채권}) \times \text{유동화율} + \text{영업손익} - \text{유동부채} \times (1 - \text{차환율})$$

11) 금융지원 등이 없었을 경우의 유동화율 및 차환율은 매출충격 및 신용경계감 상승에 따른 유동화 및 부채차환 애로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각각 5%포인트 및 20%포인트(업종별) 하락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확산세가 어느 정도 진정된다면 내년도 기업 매출액은 증가(5.8%)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정보서비스 등은 양호한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금년중 감소폭이 컸던 항공업, 숙박음식업 등도 매출이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그림 II-8).

그림 II-8. 업종별 매출액 증가율 전망



자료: KIS-Value, 한국은행 시사

향후 코로나19 장기화가 기업의 재무건전성, 유동성 및 신용 위험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기 위해 위의 매출액 전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기업 실적이 점진적으로 회복(21년중 매출액 증가율 5.8%)되는 상황을 기본(base) 시나리오로, 기업 실적 개선이 지연되면서 금년 3/4분기 수

준의 매출액 증가율¹²⁾(-1.7%)이 지속되는 상황을 비관적(adverse) 시나리오로 설정하였다. 또한 각 시나리오별로 금융지원이 지속(금융지원액¹³⁾ 0% 회수)되는 경우와 종료(금융지원액 100% 회수)되는 경우를 각각 설정하였다(표 II-1).

표 II-1. 시나리오 설정

	매출액 증가율	금융지원액 회수율
기본	5.8%	0%
		100%
비관적	-1.7%	0%
		100%

나. 재무건전성 전망

내년중 기업의 매출액 변동에 따른 재무건전성¹⁴⁾ 변화를 시나리오별로 살펴보면 기본 상황 하에서는 대체로 개선되었지만 비관적 상황 하에서는 금년보다 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기본 상황 하에서는 4.8%로 상승(20년 4.2%^c 대비 +0.6%포인트)하겠으나 비관적 상황 하에서는 4.0%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자보상배율과 부채비율도 기본 상황 하에서는 4.6배 및 80.3%로 금년의 이자보상배율 3.9배 및 부채비율 81.1%보다 개선되었으나 비관적 상황 하에서는 3.7배 및 81.3%로 금년보다 다소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관적 상황 하에서의 기업 이자보상배율(3.7배)은 글로벌 금융위기시(09년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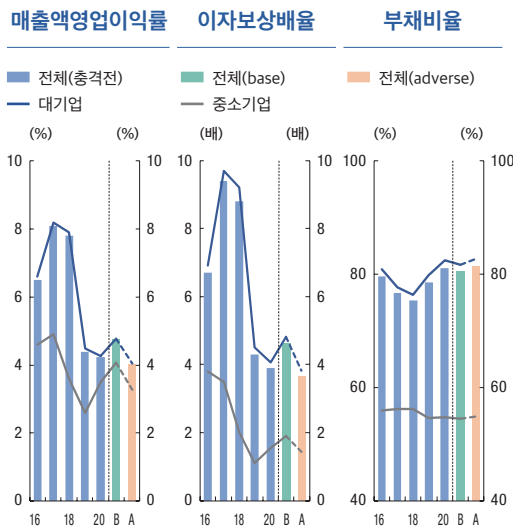
12) 자료 입수가 가능한 국내 상장기업 기준 매출액 증가율을 활용하였다.

13) 금융지원액은 '중·저신용등급 기업의 2020년중 차입금(사채 포함) 증감액(추정) - 2019년중 차입금 증감액'으로 산정하였다. 일반적으로 고신용등급 기업의 경우 별도의 금융지원 없이도 자체 신용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중·저신용등급 기업으로 한정하였다. 이렇게 추정된 금년중 금융지원액 규모는 약 60조원에 이른다.

14) 정부의 금융지원 종료 여부는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이자상환유예 조치 종료 등은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연중 이자유예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20년 2월 7일~8월 21일중 394억원)되는 데다 분석대상 기업들이 이자상환유예를 신청한 사례가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하여 본고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배)와 비슷하나 외환위기시(98년 0.6배)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그림 II-9).

그림 II-9. 시나리오별 기업 재무건전성 지표 변화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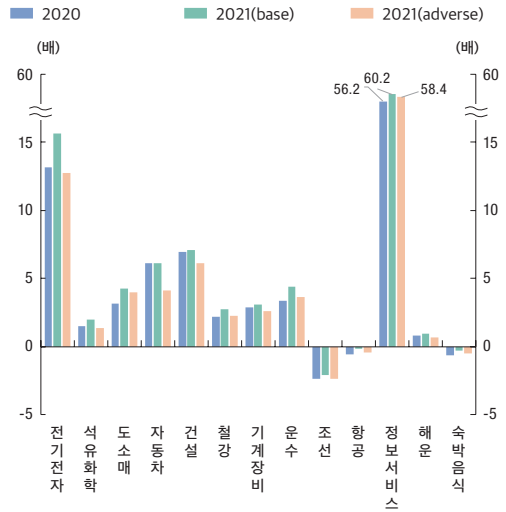


주: 1) 2020년 연간 데이터는 기업의 2020년 3/4분기 실적을 토대로 추정
 2) B(A)는 2021년의 base(adverse) 시나리오를 의미
 자료: KIS-Value, 한국은행 시산

(업종별 전망)

업종별로 살펴보면, 이자보상배율의 경우 기본 상황에서도 조선(-2.0배), 숙박음식(-0.3배), 항공(-0.2배) 등 일부 업종이 매우 악화되어 영업 적자에 처하거나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관적 상황에서는 이들 업종에 더해 해운(0.7배)도 추가적으로 이자상환능력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기전자, 정보서비스 등은 비대면 활동의 보편화 등으로 모든 시나리오에서 이자상환능력이 양호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II-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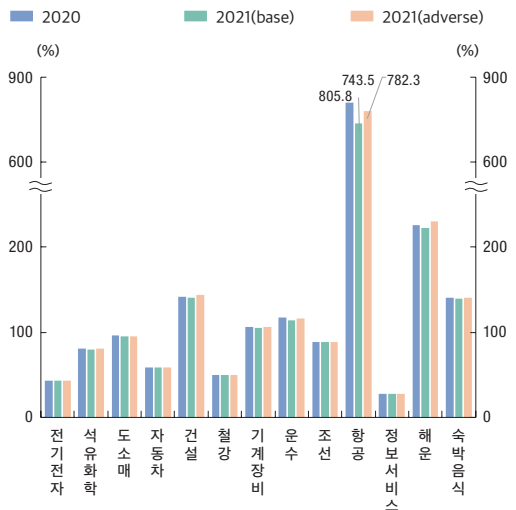
그림 II-10. 업종별 이자보상배율 변화



자료: KIS-Value, 한국은행 시산

부채비율의 경우 대부분의 업종이 2020년 수준에서 소폭 등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항공¹⁵⁾의 경우 시나리오별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변동하면서 부채비율의 등락이 매우 큰 모습을 보였다(그림 II-11).

그림 II-11. 업종별 부채비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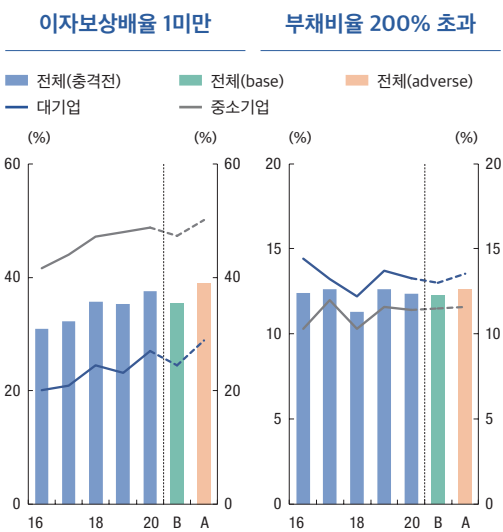
자료: KIS-Value, 한국은행 시산

15)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자금지원 계획 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취약기업)

한편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 및 부채비율 200% 초과(과다부채) 기업 비중도 비관적 상황 하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 비중은 2020년 37.5%에서 기본 상황 하에서 35.5%로 낮아졌으나 비관적 상황 하에서는 39.1%로 높아졌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시(08년 32.7%)보다는 높으나 외환위기시(98년 41.1%)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과다부채 기업 비중도 금년 12.4%에서 기본 상황 하에서 12.3%로 낮아지는 반면 비관적 상황 하에서는 12.6%로 소폭 상승하였다(그림 II-12).

그림 II-12. 재무건전성 취약기업 비중¹⁾ 변화²⁾



주: 1) 분석대상 기업 대비 이자보상배율 1미만(부채비율 200% 초과) 기업 비중

2) B(A)는 2021년의 base(adverse) 시나리오를 의미

자료: KIS-Value, 한국은행 시산

다. 유동성 및 신용 위험

(유동성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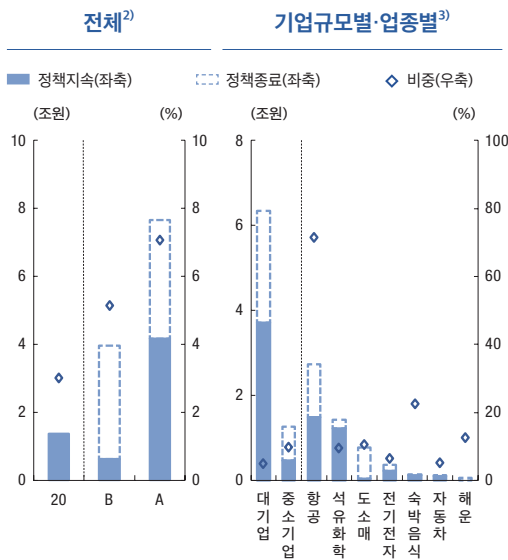
내년중 기업의 유동성 사정을 살펴보면 금융지원액의 회수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원이 연장된 경우, 유동성 부족규모¹⁶⁾는 기본 상황 하에서 0.6조원으로 금년(1.4조원)보다 줄어들고 비관적 상황 하에서는 4.2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지원액이 전액 회수될 시에는 유동성 부족규모가 기본 상황 하에서 4.0조원, 비관적 상황 하에서 7.7조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유동성 부족기업 수 비중도 금년 3.0%에서 각각 5.1% 및 7.0%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관적 상황 하에서 금융지원액이 전액 회수될 경우에는, 유동성 부족(7.7조원)의 대부분이 대기업(6.3조원)에서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종별로는 항공(2.7조원), 석유화학(1.4조원), 도소매(0.7조원) 등에서 유동성 부족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유동성 부족기업 수 비중은 대기업(4.8%)보다 중소기업(9.6%)이 높았으며, 업종별로는 항공(71.4%) 및 숙박음식(22.2%)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그림 II-13).

16) 시나리오별 유동성 부족규모(SL_scenario)는 아래와 같은 산식에 따라 추정하였다. 유동화율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동부채(회수되는 금융지원금 제외)에 대한 차환율은 업종별 매출충격 등을 반영하여 시나리오별로 조정하였다.

$$SL_scenario = \sum_{i=1}^n \text{현금성자산}_i + (\text{재고자산} + \text{매출채권})_i \times \text{유동화율}_i + \text{영업손익}_i - (\text{유동부채}_i - \text{금융지원금}_i) \times (1 - \text{차환율}_i) - \text{금융지원금}_i \times \text{회수율}_i$$

그림 II-13. 시나리오별 유동성 부족규모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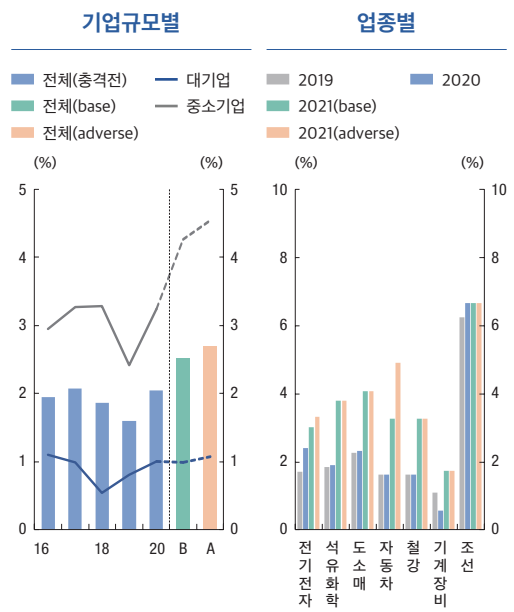


주: 1) 2021년중 기준
 2) B(A)는 2021년의 base(adverse) 시나리오를 의미하며, 부족기업 수 비중은 해당 시나리오에서 금융지원이 중단된 경우
 3) adverse 시나리오 하에서 금융지원이 중단된 경우
 자료: KIS-Value, 한국은행 시산

(신용위험)

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자본잠식¹⁷⁾ 기업 수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금년중 2.0%에서 내년에는 모든 시나리오(기본 상황 2.5%, 비관적 상황 2.7%) 하에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기업에서, 업종별로는 조선, 자동차 및 도소매 등에서 자본잠식 기업 수 비중이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II-14).

그림 II-14. 시나리오별 자본잠식 기업 수¹⁾ 비중 변화



주: 1) B(A)는 2021년의 base(adverse) 시나리오를 의미
 자료: KIS-Value, 한국은행 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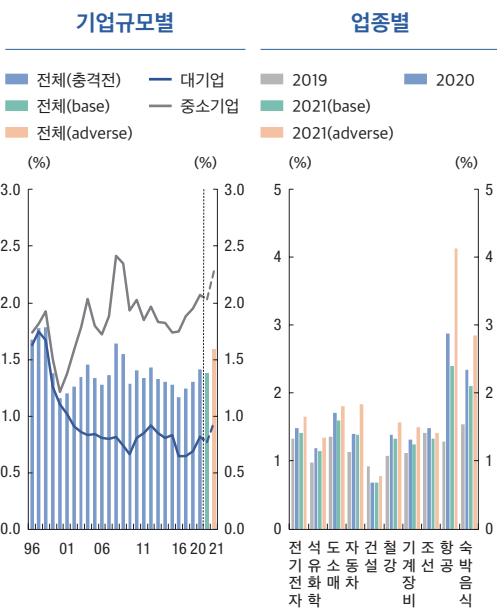
한편 주요 재무지표 전망을 토대로 2021년중 부도확률¹⁸⁾을 추정해 보면 기본 상황(1.38%) 하에서는 2020년(1.41%)보다 소폭 낮아지나 비관적 상황(1.59%)에서는 큰 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관적 상황 하에서의 부도확률(1.59%)은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나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08년 1.64%) 및 외환위기(98년 1.79%)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대부분 업종이 비관적 상황 하에서 부도확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7) 2016~19년의 경우 해당연도말 순자산(총자산-총부채)이 마이너스인 경우를, 2020~21년에는 전년도말 순자산에 해당연도의 영업이익을 더한 값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를 자본잠식으로 간주하였다.
 18) 1년 후 부도 발생 여부를 종속변수로, 당해년도 주요 재무지표를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기업이 “향후 1년 내에 부도에 직면할 확률(부도확률)”을 로짓 모형을 이용, 추정·예측하였다. 부도는 KIS-Value 데이터 상 폐업, 지급불능(총자산<총부채) 등으로 기업이 실질적 채무불이행에 이른 경우로 정의하였으며, 외생변수로는 성장성(매출액 증가율), 수익성(매출액영업이익률, 이익잉여금/총자산), 유동성((유동자산-유동부채)/총자산), 안정성(자기자본/총자산, 차입금의존도), 채무상환능력(이자보상배율 1미만 여부, 한계기업 여부, 부채비율 200% 초과 여부), 투자 효율성(매출액/총자산), 기업규모(로그총자산) 등을 이용하였다.

자동차, 항공, 숙박음식 등이 매출액 감소 등의 영향으로 상승하였다(그림 II-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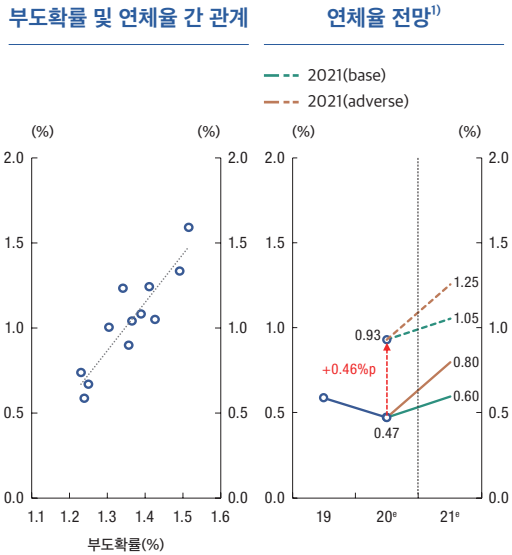
그림 II-15. 시나리오별 부도확률¹⁾ 추이 및 전망



주: 1) 개별 기업 부도확률의 평균 기준
자료: KIS-Value, 한국은행 시산

기업의 부도확률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연체율 수준을 추정해 보면, 기업 부도확률과 연체율 간의 상관 관계¹⁹⁾를 고려할 때 금년중 비교적 낮은 연체율(0.47%, 20년중 평균)이 금융지원 조치 등이 없었다면 0.93%까지 상승(+0.46% 포인트²⁰⁾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내년 중에는 비관적 상황 하에서 금융지원 조치가 유지되는 경우 0.80%, 지원조치가 종료되는 경우 1.25%까지 상승할 수 있다(그림 II-16).

그림 II-16. 부도확률 및 기업대출 연체율



주: 1) 실선(점선)은 금융지원이 지속(종료)되는 상황을 나타냄
자료: KIS-Value, 은행 업무보고서

4. 종합 평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으나 정책적 지원, 기업의 유동성 확보 노력 등에 힘입어 아직까지는 부실위험이 현재화되지 않고 있다. 내년중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경우에는 실물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기업의 채무상환능력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코로나19 진정에도 불구하고 훼손된 글로벌 생산 및 교역구조의 복구 지원 등으로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9) 부도확률의 정의(항후 1년 이내 부도가 발생할 확률)를 고려하여 2007~19년중 부도확률((t-2)기, (t-1)기 및 t기 값의 평균)과 연체율(t기) 간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0.90으로 매우 높으며, 부도확률이 0.1%포인트 상승할 경우 연체율이 0.3%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 기업대출 연체율과 부도확률 간의 장기적인 관계를 기초로 추정된 금년 연체율(0.93%)과 실제 금년 연체율(0.47%) 간의 차이(0.46%포인트)를 금융지원에 따른 정책효과로 간주하였다.

기업 실적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기본 시나리오 하에서도 금융지원 조치가 중단될 경우에는 유동성 부족규모가 4.0조원에 달하고 적지 않은 수(5.1%)의 기업이 유동성 부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업 실적개선이 지연되는 비관적 상황에서 금융지원액이 모두 회수되면 유동성 부족규모가 7.7조원(유동성 부족기업 수 비중 7.0%)까지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생존 가능성이 낮은 자본잠식 기업의 비중은 금년중 2.0%에서 기본 상황 하에서는 2.5%, 비관적 상황 하에서는 2.7%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상을 감안할 때, 금융지원 조치를 전면 종료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할 소지가 크다. 아울러 신용경계감이 강화될 경우 기업의 유동성 사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며 자본잠식기업도 늘어나는 등 누적된 신용위험이 기업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반면 완화적 금융지원 조치가 지나치게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자칫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향후 금융지원 조치는 기업의 재무건전성 및 업황 개선속도 등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는 한편 장기 존속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